

# 주의 뜻을 이루어 주를 기쁘게 하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063)211-8913  
[www.jdongsan.org](http://www.jdongsan.org)

인도 : 김신일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목상기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 경배 찬송	25장	/ 다 같 이	
* 성서 교독	27. 시편 51편		
	인도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 중/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인도자/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 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회 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도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회 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도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회 중/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인도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회 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526장	/ 다 같 이	
기 도	1부: 김석곤장로	2부: 송재덕장로	
성경봉독	시 63:1~11 (구약846p)	/ 다 같 이	
찬 양	1부: 시온찬양대	2부: 호산나찬양대	
설 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 김신일목사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183장	/ 다 같 이	
봉헌기도	/ 설 교 자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성도의 교제	/ 인 도 자	
* 찬 송	635장	/ 다 같 이	
* 축 복	/ 설 교 자		

\* 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 단기선교 파송예배

찬양 : 로고스찬양단

인도 : 배태열장로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502장
기 도	조영순권사
성 경 봉 독	마 28:18~20
특 송	단기선교팀
설 교	한국선교 110년 /김경애선교사
찬 송	505장
광 고	김신일목사
축 복	김신일목사

##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 : 카리스찬양단

인도 : 박정길목사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427장
기 도	안수봉권사
성 경 봉 독	고전 12:12~27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고린도전서강해(31) 한몸의 여러 지체 /김신일목사
찬 송	434장
광 고	박정길목사
축 복	김신일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경본문 및 주제 / 사무엘상과 기도

인도 / 김신일목사

## 봉사위원 7월

주일1부	안내	송재덕 이순재 이숙자
	헌금	국중홍 김재순 김진순 심해련 김분이
주일2부	안내	김석곤 장미화 윤인숙
	헌금	김창섭 김미애 노정숙 양연숙 박정인 인세라 신인숙 김선자b 김순애

## 예배위원

		7/8	7/15	7/22	7/29	8/5
주일1부	기도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주일2부	기도	송재덕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주일오후	기도	조영순	권사회연합	박금순	지순자	송보덕
수요예배	기도	안수봉	구영순	노정선	윤인숙	오명자

## 지난 주 현금

십 일 조/	김신일 장명진 김진수 박지영 송보덕 오정란 이진순 박필수 양은철 이에진 노영길 한정희 한연순 주의노 조영순 안석순 황순진 서인석 김태선 심보은 성선중 정은숙 송화섭 염정임 심두섭 하동현 임정식 신동선 강정자 박정보 지순자 김동만 유준영 김형곤 주혜진 이봉님 한재성 백경자 문기재 이연자 박병곤 이성숙 윤인숙 강재원 장선희 김진상 배태열 서정순 이경보 이수자 김성길 김선애 김병식 유순림 오준열 백춘자 홍순정 전대순 심재복 김선식 김하나 권지민 이남숙 조수자 최영오 서은영 정애순 장정옥 임선희 문방환 문윤지 송순자 김순녀 정동연 배순임 김학순 황관자 강막례 이수석 조진희 노정숙 한옥례 문종현 이희구 이숙자 이희남 박정숙 황봉호 안옥자 최미희 이완순 조금례 정성분 이정애(3-3)
감사현금/	한상철 육영임 김연화 노정숙 이숙자 박정보 이희남 박춘상 김남용 이미순 이봉님 서은성 김혜진 배태열 서정순 강경자 강막례 최순례 조수자 김순임 이선우 김동만 이순재 박병곤 이성숙 김덕귀 김형찬 백미정 한연순 김성길 김성애 이진순 임선희 안석순 김홍미 이지현 이지형 주혜진 정복실 김오한 이정자 홍순정 이수석 조진희 오준열 정동연 배순임 김재순 김선수 박지영 김로사 유영길 최은혜 이익수 백경자 윤인숙 오정란 이순재 박정숙 권점숙 유영중 정영옥 서성호 이은아 황봉호 정성분 조영순 김선자(3-7) 이정애(3-3) 무명⑦
생일감사현금/	송금주 박이슬 홍순정 안옥자
맥추감사현금/	295명 장학현금/ 이남숙 구제현금/ 이남숙 무명①
심방감사/	장미숙 이옥희 유경희 김은주 엄갑순 유정순 유영우 임남순 한재성 최미희 이양순(3-6)
단기선교후원금/	4여전도회 조금례 전창신 윤인숙 배순임 조영순
선교현금/	배광훈 배인선 손희재 손주안 손하음 손하람 이숙자 이남숙 양은철 강삼순 박병곤 이성숙 이지현 이지형 유영우 이완순 정성분 이정애(3-3)
특별작정선교현금/	양연숙 최전임 이진순 권점숙 최영오 임선희 유영길 김상식 장정옥 권지민 조금례 배순임 정동연 한정희 강경자 한연순 홍순정 문정식 정애순 황관자 염정임 강막례 정성례 정복실 송화섭 유순림 김경화 한재성 최미희 주혜진 김선애 박영자(1-8) 김선자(3-7)
특별작정장학현금/	강정자 정애순 최영오 황관자 염정임 강막례 정성례 정복실 홍순정 김경준 송화섭 문정식 한정희

## 지난 주 금요연합구역모임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1-1	윤인숙		1-6	윤순자		2-2	허영이	
1-2	오명자		1-7	김숙희		2-3	지순자	
1-3	이진순		1-8	박영자		2-4	김창섭	
1-4	김영자		1-9	황관자		2-5	김지순	
1-5	정애순		2-1	김혜숙		2-6	조수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2-7	김미희		3-4	노춘자		4-2	이순재	
2-8	조영순		3-5	이옥희		4-3	배옥희	
3-1	유희경		3-6	최성희		4-4	안수봉	
3-2	박금순		3-7	조복례		4-5	구영순	
3-3	이정애		4-1	이현남		4-6	노정선	

## 지난 주 출석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일1부	주일2부	주일오후	수요예배
8	39	34	42	20	27	26	228	284	120	139

## 교회소식

\*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 모임 및 안내

- 새가족 교육 : 동산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매 주일 오후 1시, 2층 새가족실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안내 및 새 생명반 교육이 있습니다.
- 특별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임시당회 : 오후 1시 쉼터Ⅱ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 월례회 : 1남전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 정기제직회 : 오후 예배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 화요기도회 :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권사회연합 헌신예배: 다음 주일 오후예배는 권사회연합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 □ 담임목사 부임심방

- 이번 주는 3-6구역, 3-7구역 부임 심방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심방날짜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산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 열람

- 동산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열람합니다.  
열람기간 : 7월 8일(주일)부터 3개월간  
열람방법 :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열람가능)  
문의 : 김석곤 장로(010-3655-9191), 김진기 목사(010-8983-2323)

###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가 7월 16일(월)~7월 21일(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시상

- 교육부서 여름행사(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후에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사진, 동영상, 글, 댓글)의 빈도 및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월 중순경에 두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 2018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7/21(토)~22(주일)	7/27(금)~29(주)	7/26(목)~28(토)	7/26(목)~28(토)	8/15(수)~18(토)
본 교회	본 교회	웅천소망교회	중부대학교	웅천소망교회

### □ 교우소식

- 새 가 족 : [18-30] 김혜진성도, (2-7구역, 8여) 인도자: 스스로  
[18-31] 서은성성도, (2-7구역, 5남) 인도자: 스스로  
[18-32] 김수현성도, (2-4구역, 8여) 인도자: 스스로  
[18-33] 박철민성도, (2-4구역, 5남) 인도자: 스스로
- 입 원 : 안옥자권사(1-2구역), 전북대병원

## 지난주일 설교요약

■2018년 7월1일 동산교회 설교 (주일 낮)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사 63:7-14)

영어로 'compassion'(컴패션)은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깊은 동정, 긍휼, 자비로움** 등을 뜻합니다. 'compassion'(컴패션)은 원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상의 뜻으로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compassion(컴패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과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3장 7-14절은 63장 7절부터 64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의 한 대목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compassion(컴패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3장 7-1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는지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비'와 '긍휼'과 '컴패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황폐해지고 참담해진 현실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전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가 바로 'Com+Passion'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련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내내 함께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독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한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실 뿐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희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하듯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그분을 슬프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간 당연히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믿는다면 지난 6개월이 지워버리고 싶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 것인가를 지시코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sup>1</sup>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 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sup>2</sup>

**참조성구** 1) 딤후 3:16 엠 2:20  
2) 요일 1:3~4 계 22:18~19



## 동산교회 소개

###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	오전 9:00	본당
주일2부	오전 11:00	본당
주일오후	오후 4: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유치부	오전 11:00	본당1층
유년부	오전 11:00	교육관3층
초등부	오전 11:00	교육관2층
중등부	오전 11:00	소예배실
고등부	오전 9:00	소예배실
청년부	오후(토) 6:30	소예배실

### 선교현황

#### 파송선교사

김경애(필리핀)

#### 협력선교사

##### 교회

복있는, 새사람, 구미중앙, 섬김, 창신, 덕천, 한반도, 주원, 희망의, 에덴힐, 반석, 삼유, 주향기, 한소망, 매암제일, 구레온당, 공향, 보안제일, 예수마을, 학동, 신동, 한몸, 울타리, 참좋은반석, 작은샘골공동체

##### 해외

박정대(시에라리온), 한용관(태국), 김환준(홍콩), 이강용(필리핀), 장순이(남아공), 김경신(브라질), 방치성(키르기스스탄), 오영조(인도네시아), 권능(러시아)

##### 기관

(사)사랑자리, 전주교도소, 군포사회복지관, 한국OMF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

### 오시는 길

[548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사무실 063)211-8913 교역자실 063)213-0018  
팩스 063)211-8910 유치원 063)212-5595

###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신일  
부목사 김진기 박정길  
강도사 송춘우  
교육전도사 황영하 유기준 이영란  
파송선교사 김경애  
원로장로 심두섭 송화섭 김장수  
은퇴장로 정동우 이석문 이기전 김동만  
시무장로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송재덕  
협동장로 이봉룡 진춘경 한재성  
지휘 김성진 김한나  
오르간 배옥희 주혜진  
피아노 손세리 박지영 서선영 홍단비  
송하은  
관리집사 류경문  
사무간사 송이화  
차량 김상식

###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서 예수님을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마 22:17) 로마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상기하게 하는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인두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식민국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로마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 왕조의 재건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통치를 꿈꾸는 자들로서 일종의 재야세력이랄 수 있는데 로마에 부역하는 자와는 거리를 둔 민족주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능성 높은 예상 답변은 부나 명예와 권력을 상대화시켰던 평소 예수님의 언행으로 보건대 로마제국의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비판할 거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올무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면 이후 로마 관리에게 밀고를 해서 예수가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사상이 불손한 혁명가라고 고소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손해볼 것 없는 질문인 이유는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해도 평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라고 외쳤던 선지자적 행세와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고 원칙을 타협하는 처세의 달인으로 낙인찍어 흠집을 내면 될 터였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식민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했던 로마 동전 한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하시고서 동전 앞면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과 문구를 가리키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마 22:20)고 물으셨습니다. 은화 데나리온 전면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과 더불어 ‘티베리우스 가이사, 존귀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꼭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인데 그것이 꼭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라기보다 단순히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지 않겠냐고만 말한 것이므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뢰를 스쳐지나갔던 것입니다. 순발력과 창의력이 진실한 진리와 결합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침의 계기로 삼는 위대한 선생으로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 재빨리 교훈을 덧붙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릴뿐대 하물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이 황제의 소유를 주장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온 존재를 빚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압도당한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세금을 내라는 말이나고 다그쳐 묻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